

# 만남

2013 11  
통권 178호



## 위령 성월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mannam.cathms.kr](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준주성범 제23장 - 죽음을 묵상함"-----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예화 -----	6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44~46-----	9
공동체 소식	-----	13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17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기도 지향》

- ❖ 일반 지향 - 고통 받는 사제들
 

어려움을 겪는 사제들이 고통 중에도 위안을 얻고, 흔들릴 때 도움을 받으며, 사제직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 ❖ 선교 지향 - 라틴 아메리카 교회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맺어 다른 교회에 선교사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준주성법 제23장 - 죽음을 목상함"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1. 미구에 네게는 이런 사정이 닥쳐오리라. 그러니 지금 네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살펴보라.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은 보이지 아니한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정신에서도 쉽게 잊어버려진다. 오! 사람의 마음은 어찌 그리 아둔하고 완고한가! 지금 일시만 생각하고 장래 일은 미리 생각지 아니한다. 네 모든 이로가 생각에 오늘 죽을 것처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네 양심이 평안하다면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 아니할 것이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준비가 다 못되어 있으면 내일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겠느냐? 내일은 일정치 못한 날이다. 내일의 해를 네가 볼는지 어떻게 아느냐?

2. 우리가 이와 같이 개과천선함이 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라. 슬프다! 오래 삶으로 항상 선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흔히 죄를 더할 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만 하루라도 잘 살아 보았으면!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입회한 지가 여러 해라고 헤아리나, 흔히는 별로 나아진 표가 보이지 아니한다. 죽는 것이 두렵다면 아마 오래 사는 것이 더 위험할 것이다. 자기의 죽을 시간을 항상 목전에 두고 있고 매일 죽음을 예비하는 자는 복되다. 너 한 번 사람 죽는 것을 보았거든, 너도 그와 같은 길로 지나기라는 것을 생각하라.

3. 아침이 되거든 저녁 때까지 이르지 못할 줄로 생각하고, 저녁 때가 되거든 내일 아침을 못 볼 줄로 생각하라. 그러니 너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 죽음이 어느 때 너를 찾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하라. 많은 사람이 갑자기 준비가 없이 죽는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마태 24,42.44; 루가 12,40). 저 마지막 시간을 당하게 되면 네가 지낸 일생에 대하여 아주 달리 생각하기를 시작할 것이요, 이와 같이 소홀히, 또는 게을리 지낸 것을 매우 후회하리라.

4. 죽을 때에 예비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항상 그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자는 그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자냐! 세상을 완전히 경천히 보고, 덕행에 나아갈 간절한 원의를 품고 수고를 다하여 보속하며, 쾌활히 순명하고, 자기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뜻으로 무슨 곤란이든지 참아 견디게 되면, 복 되어 죽겠다는 자신이 많이 나리라. 네가 성하여서는 많은 선공을 할 수 있으나, 병이 들면 무엇을 할 만할는지 나는 모르겠다. 병중에 나아지는 이가 드물고, 병중에 진보하는 이가 드물다. 이와 같이 또 순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드물게 성덕에 나아간다.

5. 친구나 친척에게 의뢰치 말고 또 네 영혼 구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너를 잊으리라. 너 죽은 후에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는 것보다 지금 미리 준비하고 선공을 미리 세워 놓는 것이 더 낫다.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위하여 삼가 돌보지 아니하면, 누가 장래에 너를 위하여 힘써 주랴?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2고린 6,2). 그러나 슬프다. 이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때이나 너는 이때를 더 유익하게 쓰지 아니한다. 네가 회개하기 위하여 하루나 혹은 한 시간만이라도 원할 때가 오리라. 너는 그때 그러한 것을 얻겠는지 나는 모르겠다.

6. 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곧 죽음을 당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험을 면하며 얼마나 큰 두려움을 면하랴! 이제 너는 죽을 때를 당하여 무서워하기보다도 도리어 즐거워할 만큼 그렇게 살기를 도모하라. 이제부터 너는 후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 세속에 대하여 죽기를 배워라. 이제부터 너는 후세에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경천히 여기기를 배워라. 너는 죽을 때에 확실히 안심하기 위하여, 지금 보속하여 네 육신을 책벌하라.

7. 오! 미련한 자여, 하루라도 더 살줄을 분명히 모르면서 어찌 오래 살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속았으며, 그 육신을 떠났는가! 누구는 칼에 죽고, 누구는 높은 데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누구는 먹다가 죽고, 누구는 놀다가 최후를 맞이하

였다는 것을 너는 몇 번이나 들었느냐? 어떤 이는 불에 타 죽고, 어떤 이는 군도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염병에 죽고, 어떤 이는 강도한테 죽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맺으니, 사람의 생명은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8. 네가 죽은 다음에 누가 너를 기억하여 주며, 누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랴! 사랑하는 이여, 네가 무엇이든지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라. 지금 하라. 이는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한 네가 죽은 후 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시간이 있을 때 불멸하는 재물을 쌓아 놓아라. 네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지 말고, 하느님의 사정만 주의하라. 하느님의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음으로써 지금 벗을 삼아라.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네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루가 16,9).

9. 너는 이 세상을 지나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여겨 세상의 모든 사정에 상관치 말아라. 네 마음은 아무 것도 거리낌이 없이 자유스러이 보존하고 하느님께로, 위로 향하여 둘 것이니,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는” (히브 13,14) 까닭이다. 너는 매일 저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탄식하고 체읍하여, 사후에 네 영혼이 주님 품으로 복 되이 옮겨가기를 빌어라. 아멘.

## ❖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예화

###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 1,2절을 부릅시다.

###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써 당신께 기도하게 하소서.
- 주님, 그저 당신께 귀 기울이겠나이다.

###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꼳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의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기도는 무엇보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이웃과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흔히 하느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려봅시다. 대화의 주제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신변의 이야기에서부터 사회적인 이슈까지 그야말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하느님과 대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웬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기원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소연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보다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의 대화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성격이나 취미나 이야깃거리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마음이 느낄 때, 그때부터 대화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느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침묵하더라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단 한마디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대화, 바로 그런 대화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 1,2절을 부릅니다.

## 교리44

## 성경 길잡이 (13)

## 성경 - 가톨릭 책

우리는 성경을 ‘가톨릭’ 책으로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의 그리스도교 성경은 가톨릭 주교들이 통할(統轄)하는 신자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졌고 가톨릭 주교들의 공의회 결정을 통해 하나의 모음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가톨릭 교회가 수 세기에 걸쳐 보존하여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가톨릭 수사들과 수녀들이 손으로 성경 말씀을 글자 하나하나 모두 베껴 썼습니다. 손으로 쓴 이 사본들 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에도 남아 그들을 만든 사람들의 애정과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천여 년 동안 매일같이 가톨릭 성체 성사 의식에서 읽혀졌습니다. 지하 묘지에서, 가정에서, 대성당에서 하느님 말씀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선포되어 왔으며, 이로서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경외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일요일로 이어지는 3년 주기의 성경 독서 책인 ‘가톨릭 독서책’은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공동 독서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경 읽기를 촉구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자주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필리 3,8)를 알도록 각별히 또한 강력히 권한다.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혹은 경건한 낭독이나 이에 적합한 강의를 통해서..., 기꺼이 성경과 친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25항; 가교 131-133참조)

## 교리45

## 성경 길잡이 (14)

## 성경의 의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자구적 의미 외에 영신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합니다.(가교 115-119).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당신 계획의 단일성 때문에 두 의미를 연결시키셨는데 성경 저자들이 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의 상징과 비유는 그 두 의미의 관계를 전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많은 성경의 사건은 우리의 주의를 더욱더 심층적 실체로 끌어들이는 표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는 하느님이 아시고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 관계를 추구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영신적 의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우의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사적 사건이 성경 본문의 자구적 의미를 초월하는 상징적 뜻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넌 일은 그리스도교의 세례 형상을 예시하고 암시하는 표징인 우의적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의미로 성경 안의 사건들이 우리를 바르게 행동하도록 인도하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롯기는 하느님과 자기 가족에게 헌신한 한 여자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롯의 헌신적인 태도를 닮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신비적 anagogical 의미입니다. 이 낱말은 인도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동사를 어원으로 하며, 성경의 사건들이 영원한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신비적 해석에 의하면 지상의 예루살렘은 천상 예루살렘의 상징이고, 지상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천상 가정의 상징입니다.

## 교리46

## 성경 길잡이 (15)

**성경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기원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 이해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말씀하신다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가교 104)

우리가 성경을 접어들 때, 시공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또는 예언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어들 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2천 년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가교 101-102)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주시며, 그 통찰력은 매일 같이 새로운 날과 더불어 맞게 되는 특이한 환경 속에 사는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차례 읽은 말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할 때, 어디로 향해 가야 할이지 몰라 허둥댈 때,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히브 4,12)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경의 자구적 의미 곧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영신적 의미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우리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우리가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성경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응답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어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느님과 대화합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을 통해서 응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구절에 이를 때까지 읽고, 그런 구절에 이르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어떤 결심을 합니다. 하느님과 이런 종류의 통교를 할 수 있게 하는 책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비안네 신부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레티시아 (St. Leticia)	김(주)영미	17일	엘리자벳 (St. Elizabeth)	허영란 김애리 송옥자 오세주 박민화 최백운 이윤경 한정자
3일	실비아 (St. Silvia)	김점선 김소라 권우애 최효진 문지연 임정희			
9일	테오도로 (St. Theodore)	김천동 Gerding아침	22일	체칠리아 (St. Cecilia)	김(이)효숙 김애란 김인선 이영희 이석희 이민희 신현숙
10일	레오 (St. Leo I) 레아 (St. Lea)	최장용 허주진 김현일 이현주 Rabe(레나)	30일	안드레아 (St. Andrew)  안드레아스 (St. Andreas)	김영경 권지연 허유선
11일	마르띠노 (St. Martin)	김용주			강지욱 김삼용 김성곤 김서대 서윤지 이승현 허승열 길조
17일	빅토리아 (St. Viktoria)	김귀숙			

❖ 지방 공동체 영명축일

16일	젤두르다	김순자(B)	22일	마리세실 (세실리아)	조영실(B)
17일	엘리사벳 (St. Elizabeth)	이경희(O) 이복순(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1월 1일 ♣ 사제 최창정 요아킴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계(€)	186,72	142,50	165,24	192,48

❖ 11월 성가번호

11월	입 당	봉 헌	마 칩
3일	337	517	463
10일	48	210	436
17일	329	217	65
24일	78	510	77

❖ 미사 전례 ❖

1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봉사
3일	김형웅그레고리오 김애란 세실리아	김동수 시 문 강신자 벨레데타	이 정 수 토 마 스 허길조 안드레아스	2구역
10일	강신행 토 마 스 이순자 마 리 아	허채열 크리스티안 김영란 엘리사벳	최 영 숙 데 레 사 최 장 용 레 오	3구역
17일	최화영 토 마 스 최종금 로 사	이영원 베 드 로 김정옥크리스티아나	김유석 그레고리오 이 정 수 토 마 스	청년반
24일	백정선 토 마 스 이영자 헬 레 나	손대조 요 셉 강순행 마리안나	허길조 안드레아스 최 영 숙 데 레 사	4구역

## ❖ 자진헌납금 ❖

10월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이영희, 김대현, 이현묵,

구좌입금 : 허길조, 광케빈, 허두욱, 김치수, 최형식, 홍경영, 최하영, 서지혜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11월 2일(토)은 위령의 날입니다. 위령의 날 미사가 ohlsdorf에서 있습니다. 미사 시간은 11:00-12:00까지입니다. 미사 후 묘지 축복식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연령회에 미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2. 매주일 미사 후 조상 및 부모님, 연옥 영혼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 주관은 연령회에서 하겠습니다.
3. 11월 30일(토)는 본당 바자회입니다.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Bremen 공동체 소식

1. 10월 19일에 브레멘 공동체의 소공동체 모임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0월 정기미사는 10월 12일 토요일, 연중 제28주일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2. 10월 5-6일, 1박2일 일정으로 벨기에 반뇌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였으며,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다 같이 묵주기도 바치고 6일(일)에 있었던 독일어 미사도 다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맑은 날씨와 좋은 여건을 허락하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3. 10월 18일(금) 6시에 Nordhorn의 설윤자 헬레나 교수님 댁에서 이번 달 정기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4. 우리 공동체의 허윤선 아가다 교수님께서 Osnabrueck 대학교, 체육 교육학과의 전임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기로 하였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정 명 옥 살 로 메	040/ 644 8623 0170 400 4754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3742 0006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인 경 카타리나	0176 6424 3886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040/ 890 3264		
		총 무	남궁춘배 발토로메오	040/ 850 9768		
	2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허 채 열 크리스티안	040/ 570 9734		
	3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강 순 행 마르가리타	040/ 297 543		
	4구역	구역장	백 정 선 토 마 스	040/ 250 2589		
		총 무	김 애 란 체칠리아	040/ 206 785		

## ❖ 2013년 11월 ❖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금	모든 성인 대축일		
2	토	위령의 날	ohlisdorf 위령미사	전례부, 연령회
3	주일	연중 제31주일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	사목협의회	
4	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5	화			
6	수		하노버 소공동체	
7	목	입동		
8	금		1구역 소공동체	
9	토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브레멘 공동체 미사
10	주일	연중 제32주일	청년기도회	
11	월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12	화	성 요사팻 주교 순교자 기념일		
13	수			
14	목			
15	금		2구역 소공동체	
16	토			
17	주일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평신도 주일 행사 예비자 교리	오스나브뤽공동체미사 브레멘 소공동체
18	월			
19	화			
20	수			
21	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22	금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3구역 소공동체	
23	토			
24	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신앙의 해 폐막	구역분과 회의	하노버 공동체 미사
25	월			
26	화	연중 제34주간 월요일		
27	수			
28	목			
29	금		4구역 소공동체	오슬로 공동체 미사
30	토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본당 바자회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소공동체 17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74 2964 504

###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